

민주 “민심 외면한 국힘, 심리적 분당의 길 접어들었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비판 “尹 나서서 치르는 선거는 환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도부 총사퇴 등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기보다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카드를 바탕으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여권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 가능성에도 불을 붙이는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1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모든 사람이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저희는 김 대표 체제로 가주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여전히 (여당에) 장악력을 행사해 총선을 치르게 될 텐데 (여당에)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치르는 선거라면 저희로서는 고맙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일컫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은 ‘12월쯤 당을 떠날지 선택하겠다’고 하고, 이 전 대표가 한 눈물의 기자회견도 심상치 않다”며 “분당 예고 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의힘은 심리적인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총선에 사활을 건 대통령이 이준석, 유승민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고 신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준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과 관련, 윤 대통령과의 친분설 등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를 반영하듯,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기준은 분명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 요직은 사사로움 친구 찾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남 의원들 지역의대 신설 촉구 상경집회

삭발 호소·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8일 기자회견과 삭발, 대통령실 앞 집회 등을 통해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원아·김희재·소병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를 늘리려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며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에 절대 부족한 의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역민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고,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의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줘야 지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 지역에 의과 대학이 신설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소병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와 전남도 시군의회장협의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전남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투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연간 83만 명의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 의료비 유출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국힘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유익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감 브리핑

김승남 “반려동물 먹거리 정확한 품질 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품질 기준을 안정성이나 영양성분이 아닌 단순 값으로 정했다”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현 정부의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R&D사업 내 정확한 조사와 통계수치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2020년 10억6500만 달러에서 2022년 13억 500만 달러로 2년 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나, 전체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국산 기능성 사료를 개발해 국내 내실화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통계 낸 기초자료 중 사료 품질을 영양성분 혹은, 원재료 분석을 통하지 않



고, 단순 가격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 R&D사업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2022년도부터 2년간 R&D예산으로만 총 21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되었기에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통계와 연구분석 결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R&D로서의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반려동물 먹거리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재갑 “EU 금지한 농약 국내 골프장서 사용”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8일 환경부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19년 186톤 ▲2020년 202톤 ▲2021년 213톤으로 총사용량이 증가했고, 골프장 1ha당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1176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농약에 노출된 셈이다. 국내 골프장의 맹독성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약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결정



과 고독성·저독성 등 독성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은 농진청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농약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농진청의 농약 위해성 평가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농진청’은 환경부가 자체 고시를 통해 사용규제가 가능하다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고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천만 이 넘는 국민이 고스란히 농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영호남 상생장터, 문화예술공연

2023. 10. 20(금) ~ 22(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